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함양

양주시 바이오농업인 대학 졸업식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2월18일 임춘빈 양주시장, 송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졸업생을 비롯한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기 양주시 BIO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바이오 대학은 21세기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 교육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선진기술 농업의 선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BIO농업인대학을 설립 운영했다.

졸업식은 1년간의 학사과정을 모두 마친 73명의 졸업생 모두에게 학장(양주시장)이 졸업장을 수여하였고,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주 1회 수업을 한번도 빠지지 않은 학생 4명에게 개근상을, 학습종합평가를 하여 1년 동안 모범적인 수업활동을 한 학생 5명에게 우수상을 전달했다.

양주시 BIO농업인대학은 2개학과 90명을 정원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과 10월의 농번기 휴강을 제외한 1년간의 학사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전공과목으로 토양학과 유기농업 등 6과목을, 시설환경학, 번식관리학 등 5과목을 curriculum으로 설정하여 시대변화



와 농업인의 전문기술 수준에 맞춰 양주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대학과정을 운영했다.

교양과목 17회 46시간, 전공과목 90시간, 현장교육 및 평가 6일 등 총 46일 184시간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현장학습교육은 과별 현장지도교수 인솔아래 차량이동 중에는 성공사례발표, 친환경과는 (사)휴살림을 방문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병해충방제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친환경물류센터와 친환경실천농가 현장을 방문하고, 친환경 선도

지역인 양평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환경농업대학 운영현황과 양평의 친환경 실천 농가를 방문 직접 보고 배우는 현장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농업인대학 우수지역인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벤치마킹과, 학생들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유대강화로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 복합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회 열린 아버지 학교 졸업식

4주간 교육 56명 건강한 가정 분위기 조성

아버지의 의식변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열린 아버지 학교' 졸업식이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전문 강사의 진행 스태프 30명으로 구성되어 실시한 '제1회 열린 아버지 학교'는 총 56명의 아버지가 4주간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졸업식은 가족과 함께 레크레이션, 노래 부르기 등을 시작으로 실시했다.

또한 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및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나누며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가정에서 권위적으로 굴림 했던 아버지가 각 아내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아내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갖기도 했다.

세족식을 통해 많은 아내가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으며 부부

가 함께 허킴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은 고백하고 위로하는 감동적인 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수료식은 향락문화, 술, 성,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순결했다는 서약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임춘빈 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상시 표현하는 것이 어렵혀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지 못한 아버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 질 때, 우리의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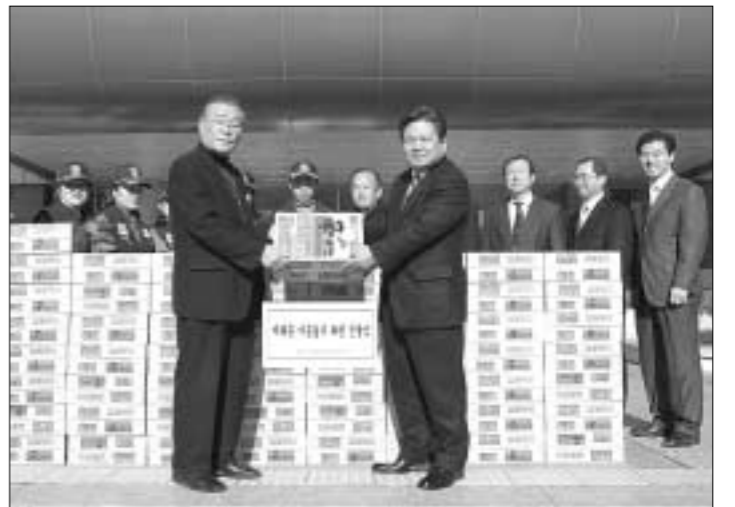
한 주부는 결혼 후 20여년 만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직접들을 수 있게 한 '아버지 학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아버지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서 딸과 허킴하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우리 가족전체가 조금씩 변해 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경원선 덕정역 개통식

경원선 덕정역 개통식. 양주시는 12월15일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정역 개통식 행사를 열었다.



동두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라면 100상자 기탁

시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동두천시지회(회장 오병차)는 12월18일 오전12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100상자(약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연천, 베트남 내무차관 일행 방문

연천군은 12월18일 본군 2층 상회실에서 김규배 군수는 38선 백학면 정보화마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베트남 차관 일행을 접견하고 환영식을 가졌다.

탈북자 초청 통일안보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연천군지부, 정은심 강사 초청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연천군지부(지부장 노은진)는 19일 전곡 소재 여성회관 4층 강당에서 관내 유관기관장, 자유총연맹 회원, 유관기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초청 통일안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정은심 안보강사는 함흥시 회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하다 올 1

월경 탈북하여 10월에 입국하였으며 현재는 평양민속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통일 한국자유총연맹 안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6월15일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출범하여 창립52년째를 맞은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운동단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홍보 대국민캠페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연천지부에서는 통일안보 교육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 안보의식 고취활동을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참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힘쓰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 무형문화재 영상홍보물 배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단체 배부 교류 확대기로

양주시는 역사와 예술상 가치가 높아 국가로부터 지정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70호인 양주소놀이 등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27호인 양주상여와화다지소리, 46호인 양주농악 등 4개 무형문화재의 주요 공연장면을 수록한 양주의 무형문화재 영상물 1,000개를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단체를 비롯 관내 초·중·고교, 일반사회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 주요공연 장면을 나레이션과 자막으로 구성·편집하였고, digital-betaom 방식으로 제작하여 화면의 선명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했다.

양주시의 무형문화재는 보유단체(보유자)를 중심으로 많은 참여로 상호 정보교류는 물론, 교류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영상물에는 4개 무형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도록 했다.

간·계층간 균형적인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민중 교유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무와 대사로 이루어져 다른 가면극에 비해 예술성을 익히 인정 받고 있는 별산대놀이를 세계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대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는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통해

문화재를 소재로 한 지하철광고, 문화유적 학습용 영상물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한편, 무형문화재 단체의 전승기반 확충을 위해 전승 및 공연지원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경기도 전통 민속놀이 축제 개최

연천군 공설운동장, 31개 시군 선수단 1천여명 참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는 12월 18일 연천군 공설운동장 야외공영장에서 김규배 군수를 비롯해 31개 시·군에서 선수 및 임원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생활체육 전통 민속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 경기종목 및 부대행사는 율령이 시군별 4인 1조 경기가 골렘의 골리개에는 4인 1조 경기, 제기차기에는 2팀 4명이 시군별 2인 1조로 편성한 초등부, 일반부에 각개팀이, 줄다리기에는 지역별 30명씩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편성해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는 국궁체험, 팽이치기, 투호던지기, 연날리기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도협의회장,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의원, 군의원, 각급유관기관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체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축제를 계기로 점차 잊혀져가는 전통 세시풍속인 민속놀이를 생활체육에 접목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 이를 계승·발전시키고 동질적 생활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맷돌 돌려 두부 만들어요”

소외계층 아이들 현장체험 학습나들이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아동들과 도서관 자원봉사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12월 18일 현장체험 학습나들이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정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독서논술·꽃 피우는 아이들 프로그램에 활동 중인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은 33명의 시설입소 어린이들에게 꿈나무어머니 회원들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내 눈으로 세상보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독서지도 및 다양한 문화 접근 기회와 지적호기심 충족 등의 교육을 통해 지적 감수성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감성의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번 체험나들이는 민통선 안에 있는 파주 장단콩 마을로 경기도에서 선정한 슬로우 푸드 체험 마을로서 이곳에서 아이들은 맷돌 돌려 두부 만들기, 우리 장 맛보기,

청국장 만들기 등의 생활체험을 하였으며, 고구마·옥수수 구워먹기, 복단 철새 보기 등 자연체험도 함께했다.

특히,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통해 직접 만든 두부와 청국장 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을 경험하였으며, 추수가 끝난 논밭으로 나가 비닐밭을 만들어 하늘 위로 날리며, 높고 푸르른 하늘 밑에서 날아오는 철새도 함께 보았다. 아이들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뛰어나는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소외계층(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아동과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삶과 희망을 불어넣은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공직자 가족 혁신 연극 공연

양주시는 일과 혁신의 융화를 통해 혁신성과 및 고객만족을 위하여 바람직한 양주의 공무원상을 구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직자 부부(가족) 혁신 연극 공연”을 오는 26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갖는다.

이번 공연은 즐거운 직장의 전체 조건인 가정의 행복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도록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실시 가족의 공직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주시청 공무원가족 350명을 대상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공연을 한다.

공연 내용은 주인공 박철남 주사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부인과 갈등을 묘사한 내용으로 어느 날 산불이 발생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박주사와 가정 등한시키고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에 대해 짜증을 내는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박주사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는 아내를 섭섭해 하는 심리적 충돌이 계속되지만 나중에서야 아내가 자신을 떠박하는 이유가 남편의 몸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표창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을 이해



한다는 내용의 연극이다. 공직생활에 대한 애환과 고충을 가족과의 공감대를 연극을 통해 개인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이번 연극에 많은 공직자 가족이 참여 좀더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현삼식 양주시 사회산업국장 명예퇴임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40년간의 공직생활을 접고 용퇴

“제가 40여년간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신 저의 가족과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준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하며 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후배들의 든든한 모습에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나겠습니다.”

40년을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외길을 걸어오며 좁은 대인관계와 자상한 성품으로 농업 발전의 산증인으로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현삼식 사회산업국장은 18일 명예퇴임을 갖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임춘빈 양주시장은 명예퇴임을 맞은 현삼식 사회산업국장에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평생을 공직에 전념하도록 배려해준 유난순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 국장은 의정부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6년7월 이천군 신문면에서 지방토목기공보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산업과 농사계장 산림과 식수계장과 보호장관포장 3회, 도지사표창 2회를 수상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유난순(56세)여사와 아들 성복 군과 성철 군을 슬하에 두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현삼식 전 사회산업국장 퇴임

